



[Case Study] 일진그룹 모바일 오피스

부품/소재 분야 '국가대표', 모바일로 '미래 창조'

1967년 설립된 일진그룹은 지난 40여 년간 산업의 근간이 되는 부품/소재 분야에 매진해 핵심 기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더 나아가 우리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지속 성장하는 미래 창조 기업'이라는 VISION2015를 세우고 신제품 개발,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일진그룹은 전 계열사의 보다 빠른 의사 결정과 소통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IBM Lotus Notes 기반의 그룹웨어를 재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현했다.

Project Overview

- **도입 배경** | 업무 효율 개선 위한 그룹웨어 재구축,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한 모바일 오피스 환경 구현
- **선정 이유** | Lotus Domino 기반의 안정적인 성능, 모바일로의 손쉬운 연동, 그룹웨어 외에 기간제 시스템도 모바일로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스마트폰 단말기나 OS에 독립적인 크로스 플랫폼 환경 지원
- **도입 효과** | 임원들의 해외 출장으로 인한 결재 대기를 최소화함으로써 비즈니스 전반의 의사 결정 속도 개선, 그룹웨어 활용도 증가, 효과적인 포탈 구축이 가능한 기반 인프라 환경 마련
- **도입 제품** | Lotus Notes/Domino (새롬정보시스템 eMATE Groupware, eMATE Mobile™)

일진그룹은 1967년 설립 이후 지난 40여 년간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내 부품/소재 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 결과 배전금구류, 동복강선, 공업용 다이아몬드, 2차 전지용 elecfoil 등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부가가치 품목들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핵심 기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데 일조했으며, 이에 더해 다이아몬드 기술을 비롯한 일부 기술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는 매출액 대비 10%를 꾸준히 연구 개발비로 투자해 온 일진그룹의 집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일진그룹은 8개의 부설 연구소를 설립해서 100명 이상의 석박사 연구 인력이 자체 기술 개발에 매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400여 생산 품목의 90% 이상을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일진그룹은 일진전기, 일진다이아몬드, 일진디스플레이, 일진홀딩스, 일진Materials, 일진제강, 일진반도체, 일진유니스코 등 10여 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모두 전기/통신, 부품, 소재, 금융/방송, 건축 등의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VISION2015 하에 미래 성장 전략 마련

일진그룹은 전 계열사의 성장세와 해외 비즈니스 확대 등으로 인해 빠른 의사 결정과 임직원, 계열사 간의 소통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됐다. 특히 임원들의 해외 출장이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 의사 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임원들의 중단없는 업무 환경 구현과 이를 통한 업무 효율성, 생산선 향상이 중요한 개선 과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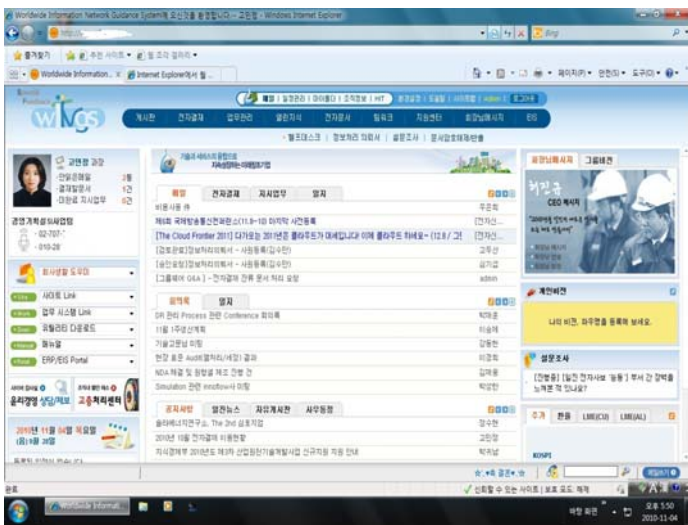
이에 일진그룹은 그룹사 전 임직원의 업무 효율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그룹웨어를 재구축하고, 여기에 언제 어디서나 그룹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을 구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2년에 IBM Lotus Notes 기반의 그룹사 통합 그룹웨어를 구축해서 현재까지 사용해 온 일진그룹은 새로운 그룹웨어의 플랫폼으로도 Lotus Notes가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사용자들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중이고, 특히 보안이나 성능 측면에서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일진그룹은 그룹웨어 솔루션으로 IBM의 협력사인 새롬정보시스템의 eMATE GroupWare 제품을, 모바일 오피스 솔루션으로는 eMATE Mobile을 선택했다.

일진그룹 경영기획실 송화섭 팀장은 "우리의 그룹웨어는 그룹사 전체가 사용하는 인프라인 만큼 화려한 기능이나 디자인보다는 안정성과 보안,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이 특히 중요하다. 이를 중점 검토한 결과, IBM Lotus Notes와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롬정보시스템의 제품과 기술력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전 계열사, 하나의 통합 그룹웨어 활용



일진그룹의 그룹웨어는 10여 개의 전 계열사가 동일한 인프라를 사용한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계열사마다 비즈니스나 업무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되도록 그룹 표준에 기반한 통일된 IT 환경을 갖추는 것이 그룹사의 정책이다. 실제 일진그룹은 2003년에 전 계열사의 IT 운영을 한국IBM에 아웃소싱하고, 전 계열사의 IT 환경을 일관된 정책 하에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하에 일진그룹의 그룹웨어도 그룹사 통합 환경을 제공한다. 공

지사향, 게시판, 사우동정, 열린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의 커뮤니티 기능은 물론이고, 전자결재, 일정관리, 조직정보, 폴더관리, 팀워크 등의 업무 관련 기능도 모두 그룹사 전체 공개와 공유가 가능하다. 그룹웨어의 이름을 명명할 때도, 계열사 전체 임직원 대상의 사내 공모를 통해 정했다. 전 계열사 임직원들의 뜻을 모아 정한 일진그룹의 그룹웨어 이름은 'WINGS'이다.

일진그룹의 송화섭 팀장은 "그룹웨어는 모든 임직원이 매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일한 업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고 본다. 특히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단일한 기업 문화를 전달하고,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 일진그룹의 그룹웨어 메뉴 중 사우동정이라는 게시판이 그러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소속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남 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경조사가 전 계열사 직원에게 공유됨으로써 마치 한 회사의 동료에게 좋은 일 또는 나쁜 일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계열사 임직원들간의 유대가 매우 돈독한 편이고, 이를 통해 업무 협조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로 신속한 의사 결정 가능



일진그룹은 그룹웨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특히 임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오피스도 구축했다.

최근 해외 비즈니스가 활발해지면서, 임원들의 해외 출장 횟수도 늘어났다. 그렇다 보니 임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결재 처리 지연이 업무 효율이나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특히 일진그룹은 계열사가 많은 만큼 결재의 양도 많은 편이다. 매월 승인 처리가 되는 결재건만 7000여 건에 달할 정도다.

일진그룹은 임원들의 신속한 결재 처리와 의사 결정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을 모바일 오피스 구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전 계열사 임원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모바일 오피스인 WINGS Mobile을 적용하며, 메일, 결재, 공지사항, 인적네트워크, 사우동정, 조직도 등 임원들에게 필수적인 기능 중심으로 간소화했다.

또 어떤 모바일 단말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웹 기반으로 구현됨에 따라,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등의 주요 스마트폰은 물론 아이패드, 갤럭시탭 등 태블릿 단말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일진그룹은 모바일 오피스를 통한 신속한 결재 처리로 인해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룹웨어 기반 하에 포탈 시스템 구현 예정

그룹웨어와 모바일 오피스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일진그룹은 이를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경에 포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일진그룹의 그룹웨어는 포탈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기능을 담고 있다. 그룹웨어 내에 열린 지식이라는 메뉴 하에 Knowledge Box, 공유 정보, 통합 검색 등의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와 EIS(Enterprise Information System)도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EDMS(Enterprise Document Management System)가 포함되어 있어, 계열사별 문서함이나 사내 규정, PMS, 개인 문서함 등을 그룹웨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일진그룹 송화섭 팀장은 “그동안 그룹웨어를 잘 사용한 덕분인지, 임직원들의 그룹웨어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그만큼 요구사항도 많아서, 다양하게 기능을 확장, 개선하다 보니 이미 그룹웨어 자체가 포탈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한다.

새롭게 구현될 포탈은 신규 구축된 그룹웨어가 근간이 되며, 추가적으로 ERP, MES 등 기간계 인프라를 포탈 내에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사용자들이 그룹웨어와 기간계 인프라를 하나의 업무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계열사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그룹사 통합과 계열사별 특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일진그룹은 이번 그룹웨어 개편과 모바일 오피스 도입으로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지속 성장

하는 미래 창조 기업'이라는 VISION2015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토대를 확보하였다.